

하박국 2장 1 - 4절 : 주님의 응답

1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2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 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2)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4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 하박국 1장 12절부터 시작된 하박국의 두번째 질문과 탄식은 2장 1절에서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0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다루는 대목은 하박국의 질문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과 하나님의 대답 첫 부분입니다.
- 2장 1절은 하박국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박국의 담담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소와 망대는 파수꾼이 성의 높은 곳에서 메신저가 오는지 아니면 적이 쳐들어 오는지를 감시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하박국이 그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 특히 13절에서 제기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두고 보시며, 악한 백성이 착한 백성을 삼키도록 지켜 보시지만 하십니까?' 라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상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훈계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을 기다리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가 이사야서 21장 8절과 11절, 예레미야서 6장 17절,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살피는 망대도 있지만, 포도원에서 잘 익은 포도를 지키려고 세운 망대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 2절과 3절에 나오는 '묵시' 라는 말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계시' 라고도 번역된 것을 봅니다 (역대상 17장 15절, 잠언 29장 18절). 영어로는 'vision' 이라고 번역됩니다.
- 2절은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가면서도' 라는 말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달린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기 위해 달리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 3 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이 정한 때가 되면 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디게 오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 3 절에서 끝이 곧 온다고 하시지만 더디게 올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반드시 온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 3 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곧 다가올 유다의 멸망 (주전 586 년)과 약 50 년 뒤에 따라 올 바빌로니아의 멸망 (주전 539 년) 과 연결됩니다. 특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언급하는 4 절은,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주전 600 년 경입니다. 앞으로 10 여년에서 60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 절에는 대비되는 두 사람, '교만한 자' 그리고 '의인' 등장합니다. 앞에 나오는 교만한 자는 단수 명사인데, 전체 바빌로니아 사람을 가리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 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을 앞선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질것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좋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들쭉날쭉한 믿음이 아닌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할 때에 자주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 로마서 1 장 17 절
 - 갈라디아서 3 장 11 절
 - 에베소서 2 장 8 절
 -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히브리서 10 장 38-39 절에서도 인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